

2011.12.19 미래정책연구실

※ 본 자료는 지난 12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개요

- 10년간 10조원 규모의 농어업 시설현대화 추진
- 2012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 경주
- 수산양식 10대 전략 품목을 본격 육성,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시대 준비
- 농협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 귀농·귀촌 One-stop 서비스 강화 및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 주요 내용

1. FTA대비 농어업 선진화에 박차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 집중 육성

- (농고·농대교육) 전문 교과과정 개발, 실습시설 지원(2개소) 및 선도 농어업인의 겸임교사제 활성화 등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
- (창업지원) 창업품목 컨설팅, 1:1 전문가 멘토링, 30대 이하 농지 매입 및 임대지원(2,500ha) 등을 통해 **젊은 농어업인 육성(매년 2,500명)** 계획
- (농어업인 재교육) 평생교육 및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PTC*형 실습교육장** 확충 등 농어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실습교육 강화
- 지역특색에 맞는 성장삼업 발굴, 육성(말산업, 정원산업, 곤충산업, 관상업 산업 등)으로 2015년까지 매출액 1억 이상 고소득경영체 10만개 육성(2011년 3만1천호)

종자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R&D) 성과 향상

- (종자산업육성) **'Golden Seed Project'** 추진('12~'21년, 4,911억원), 20개 품목의 수출용 종자개발 추진으로 종자강국 실현
 - 민간육종연구단지(Seed Valley, 김제) 조성, 방사선육종센터(정읍) 설립·운영
 - 민간종자기업 육성: 농식품펀드(3,300억원, 16개) 투자 유도
 - 종자수출: ('10) 0.25억불 ⇒ ('30) 30억불
- (신물질·식품소재 개발) 발효·저탄소 가공 등 식품 핵심기술(18개), 코팅제 등 품질유지기술 개발 등 유통·식품분야의 연구개발 강화
 - ※ 실용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산업화를 신규로 지원(1,000억원, 3%)할 계획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향후 10년간 10조원 투입

- (필요성) 미래 농어업의 중심은 시설 농어업임. 기후변화 및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농어업 발전이 필수
 - 낙후된 시설은 생산성 저하, 질병발생 빈도 증가, 경영비 절감 제약의 주요 원인
 - ※ MSY(어미돼지 1두당 연간 출하두수) : 우리나라 15두, 덴마크 25두
- (추진방안)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농어가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지원방식 전환(보조+융자→이차보전)**
 - ※ 현재 지원방식·규모(2,450억원)로는 10조원 규모 시설현대화에 40년 이상 소요
 - 시설현대화를 통해 품질을 고급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향상하여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

'12년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불 달성에 총력

- (전략) **중국, 일본, 아세안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국가별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25개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할 계획

※ (중국) 서부내륙 신시장 개척, (일본) 중소도시 판촉강화, (아세안) 국가별 선호품목 지원

※ (신선) 인삼, 김치, 파프리카, 배, 버섯, 장미, 딸기, 사과, 토마토, 단감 / (가공) 소스류, 면류, 유자차, 조제분유, 막걸리 / (수산) 넙치, 굴, 전복 등 10대 양식품목

○ (수단) 수출선도조직(16개), 수출협의회(17개)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자율규제(체크프라이스)**토록 하고, 다품목·공동수송이 용이한 가공제품부터 전문물류업체를 선정(4월)하여 수출업체의 공동이용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별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

○ (원예농산물) 인삼,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시설 원예전문단지(292억원) 이외 일반 원예시설을 신규로 지원(500ha, 250억원) 할 계획

○ (10대 양식전략품목) 연구클러스터 운영, 양식면적 확대(4천ha) 및 갯벌 양식장 임대차 허용 등 신규 경영체의 진입도 활성화 (“수산업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중)할 계획

※ 갯벌참굴, 해삼, 넙치, 해조류, 관상어, 새우, 능성어, 참치, 뱀장어, 전복

○ (축산물) **필리핀 등 해외농장개발**(‘11 : 37천ha → ‘12 : 80)을 통한 사료 곡물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조사료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

※ 국내 사료작물 생산량 : (‘10) 1,597천톤 → (‘12) 2,522 → (‘14) 3,138

2. 농업개역 완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이는 농수산물 유통 실현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농업인은 생산, 가공·판매는 농협 담당)

○ (판매능력 확충)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조직을 조합지원에서 판매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사업 필요 자본금 충분히 확보

○ (농업인 참여유도) **농협과 장기 수탁 계약시 출하선도금 지원** 확대 등 농업인의 조합 경제사업 참여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해나갈 계획

○ (이행 점검) 정부·농협간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2월)하고, 이행점검을 위해 **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운영(3월~)할 계획

○ (품목별 유통선진화) **조합 출하물량의 50%를 농협중앙회가 유통**을 담당토록 할 계획임

- 쌀 : 전국단위 판매회사 설립 추진, 수도권 집배송센터(안성) 설치

- 청과 : 안성 등 5대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소비지 대형 소매매장과 직거래

- 축산 : 생산~판매를 계열화한 대형패커 육성 및 수도권 종합물류센터(부천) 설치

농협·수협경제사업 활성화 연계, 품목별 수급 및 물가안정을 적극 추진

○ (쌀) 수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2년 **RPC 벼 매입자금의 25% 이상 수탁매입을 의무화**(‘11 : 20%)하고, 가공용 쌀소비를 보다 확대(‘08 : 22만톤 → ‘12 : 40)해 나갈 계획

○ (원예) **농업관측 고도화, 농협 계약재배**를 확대(‘11 : 12% → ‘12 : 20)하고, 수급불안 품목의 **국내산 수매·비축**(고추 : 0% → 2, 마늘 : 1% → 2)을 늘려나갈 계획

○ (축산) 한우 암소도태, 돼지 종돈공급 확대, 우유 전국단위 수급관리 등 축종별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 (수산) **산지거점유통센터 2개소** 신규 지원, **노량진 수산시장 시설현대화**(‘12~‘15, 2,024억원), 비축 확대 등 유통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수산물유통선진화방안 마련, 9월)

3. 귀농·귀촌, 공동경영체 육성으로 농어촌 활력 도모

○ (추진배경) 베이비부머세대(‘55~63년생 712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귀농귀촌: (‘01) 880호 ⇒ (‘05) 1,240 ⇒ (‘10) 4,067 ⇒ (‘11p) 5,500

※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 부머의 66.3%가 농어촌 이주를 희망 (13.9%는 5~10년내 이주 계획)

- 도시의 베이비부머에게는 농어촌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어촌은 신규인력 유입으로 활력 창출
- (교육·지원) 귀농·귀촌 전문상담사를 양성(120명)하여 귀농인에 대한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농지·어선·주택구입·시설건립 등 창업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실시(600억원) 계획
-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코디네이터(120명) 육성 등을 통해 귀농·귀촌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
- 아울러, 귀농·귀촌 페스티벌(6월),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공동경영체)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운동'과 연계하여 공동영농·영어, 유통·가공, 농어촌 관광 등을 추진할 '농어촌 마을 공동경영체'를 선정하고 컨설팅,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

주간농업 농촌동향 201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지역조사 부문)

※ 본 자료는 지난 12월 1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 농림어업총조사 집계 결과 (지역조사 부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마을연망

전국의 마을은 36,498개이며, 가장 많은 시도는 전남

○ 전국의 마을은 36,498개로 2005년보다 457개(1.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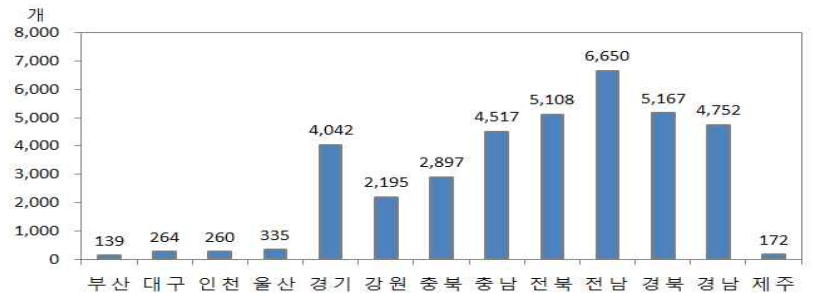
- 전국의 마을은 읍지역에 22.5%(8,212개), 면지역에 77.5%(28,286개) 분포하고 있으며 5년 동안 읍지역에서는 6.8% 증가했고, 면지역에서는 0.2% 감소했음.

<읍면별 마을 현황>

구분	2005	2010	증 감	증감률
				단위 : 개, %
마을수	36,041	36,498	457	1.3
읍 지역	7,686	8,212	526	6.8
면 지역	28,355	28,286	△69	△0.2

○ 시도별로는 전남이 6,650개(18.2%)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북 5,167개(14.2%), 전북 5,108개(14.0%) 순임.

<시도별 마을 현황>



마을별 평균(중위) 가구수는 48.9가구, 농가가 있는 마을은 36,027개인 98.7%

- 전체가구 규모별 마을은 가구수가 「20~79가구」인 마을이 66.1%이며, **평균 가구수는 48.9가구**로 나타남.
- 「20~39가구」 마을이 29.2%로 가장 많고, 「40~59가구(23.7%)」가 다음 순위
- 「19가구」 이하 마을 8.5%, 「300가구」 이상인 마을도 5.6%로 나타남

<전체가구 규모별 마을 현황>

단위 : 개, %

합계	19가구 이하	20~39	40~59	60~79	80~99	100~149	150~199	200~299	300가구 이상	평균(중위) 가구수
36,498 (100.0)	3,091 (8.5)	10,642 (29.2)	8,641 (23.7)	4,824 (13.2)	2,467 (6.8)	2,525 (6.9)	1,083 (3.0)	1,186 (3.2)	2,039 (5.6)	48.9

- 농가 규모별 마을 분포를 보면, 「10~19가구」인 마을이 10,361개(28.8%)로 가장 많고, 「20~29가구(26.4%)」, 「30~39가구(16.1%)」순임.

<농림어가 규모별 마을수>

단위 : 개, %

	농림어가 있는 마을수	농림어가 규모별						평균(중위) 농림어가수
		1~9	10~19	20~29	30~39	40~49	50가구 이상	
농 가	36,027 (100.0)	4,099 (11.4)	10,361 (28.8)	9,499 (26.4)	5,807 (16.1)	3,096 (8.6)	3,165 (8.8)	23.3
임 가	18,799 (100.0)	16,737 (89.0)	1,496 (8.0)	392 (2.1)	122 (0.6)	41 (0.2)	11 (0.1)	2.7
어 가	5,374 (100.0)	3,726 (69.3)	700 (13.0)	392 (7.3)	206 (3.8)	129 (2.4)	221 (4.1)	3.3

- 농가 비율별 마을 분포를 보면, 「50~60%미만」인 마을이 1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70%이상(18.9%)」, 「60~70%미만(18.5%)」순으로 나타남.

<농림어가 비율별 마을수>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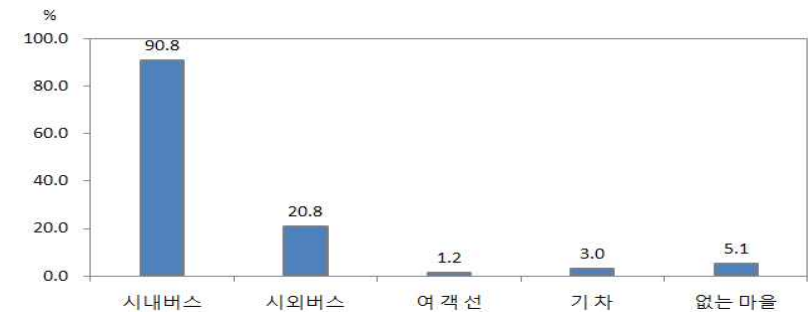
	농림어가 있는 마을수	농림어가 비율별							70% 이상
		10% 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농 가	36,027 (100.0)	3,155 (8.8)	2,198 (6.1)	2,277 (6.3)	3,194 (8.9)	4,746 (13.2)	6,988 (19.4)	6,668 (18.5)	6,801 (18.9)
임 가	18,799 (100.0)	13,569 (72.2)	2,588 (13.8)	1,190 (6.3)	646 (3.4)	377 (2.0)	250 (1.3)	114 (0.6)	65 (0.3)
어 가	5,374 (100.0)	3,313 (61.6)	651 (12.1)	408 (7.6)	320 (6.0)	216 (4.0)	167 (3.1)	103 (1.9)	196 (3.6)

□ 교통 및 시설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마을은 전체의 94.9%이며, 주로 시내버스를 이용

- 마을별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을 보면, 시내버스가 33,128개(90.8%) 마을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시외버스로 7,595개(20.8%) 마을임.
- 기차가 이용가능한 마을은 1,104개(3.0%)로 나타났음
-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마을은 5.1%(1,859개)**로 2005년에 비해 1.3%p(452개) 감소했음.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별 마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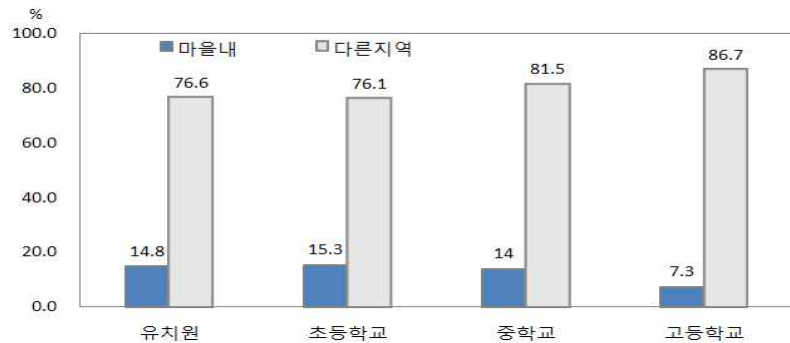
읍면 마을의 시내버스 평균 운행 횟수는 10.3회

- 시내버스, 시외버스, 기차의 운행횟수별 마을은 「15회이상」이 가장 많고, 다음이 「4~6회」, 「10~14회」 순임.
- 여객선은 「1~3회」를 운행하는 마을이 가장 많고, 다음이 「4~6회」 순임.
- 대중교통별 1일 평균(중위) 편도 운행 횟수는 시외버스가 14.3회로 가장 많고, 기차(10.9회), 시내버스(10.3회), 여객선(4.1회)순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마을은 생활편의 시설이 20분 거리 안에 위치

- 교육시설이 「마을 내」에 있는 마을이 유치원 14.8%, 초등학교 15.3%, 중학교 14.0%, 고등학교는 7.3%이며, 대부분 「다른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지역」에 있는 교육시설 중 60% 이상이 소요시간이 20분 미만
 - ※ 20분미만 : 유치원 68.8%, 초등학교 69.1%, 중학교 70.5%, 고등학교 60.4%
- 소요시간이 20분 이상인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7.0%, 중학교 11.0%, 고등학교 26.3%로 상급학교 일수록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각종 사설학원이 「마을 내」에 있는 마을은 약 8%이내 이며, 대부분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시설 위치별 마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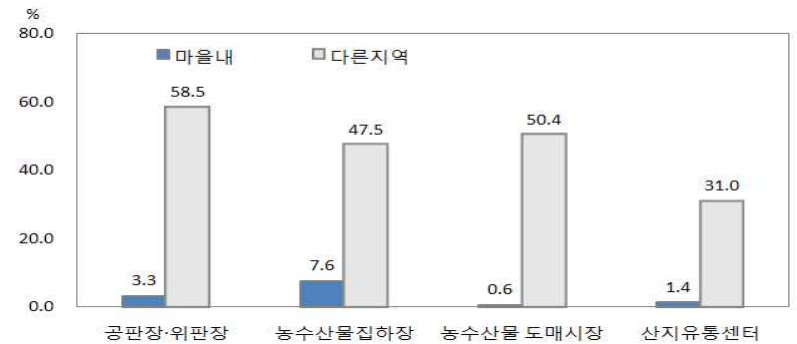


- 의료시설을 보면 약국·보건소가 「마을 내」에 있는 마을은 약 10%이내이나, 종합병원은 1.0% 수준임.
- 다른 지역인 경우 소요시간 20분 미만에 약국이 67.9%, 보건소가 73.2%로 나타나 기초의료 시설 접근은 대체로 용이한 것으로 보임
- 병·의원, 한의원도 20분 미만에 58.5%로 나타났으나, **종합병원은 30분 이상이 60.4%**로 접근 편의성이 낮은 편임.
- 기타 생활편의 시설을 보면, 마을회관이 「마을 내」에 있는 마을이 92.5%이고, 어린이집·협동조합·우체국·파출소는 약 10% 수준임.
- 금융시설을 보면 협동조합·우체국이 「마을 내」에 있는 마을은 10% 수준이나, 새마을금고·은행은 5%미만으로 나타남.

유통시설 및 생산기반시설은 주로 「30분이상」 거리에 많으나 저은 저장고는 해당 「마을 내」가 가장 많음

- 유통시설 이용은 「다른 지역」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마을의 비율이 다른 시설 보다 높게 나타남.
- 다른 지역으로 30분 이상 소요 비율은 공판장·위판장이 26.8%, 농수산물 집하장 16.4%, 농수산물도매시장 36.6%, 산지유통센터 14.0%임.

<농림어업 관련 시설 위치별 마을 비율>



- 생산기반시설 중 저온·저장고는 「마을 내」에 19.2%로 다른 시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다른 지역」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마을이 19.2%로 높은 편임.

□ 경영형태

마을별 농업 경영형태는 논벼, 채소·산나물 순임

- 농업 경영형태별 마을을 보면, **논벼 마을이 92.2%**로 가장 많고, 다음이 채소·산나물(75.5%), 축산(60.2%), 식량작물(60.0%) 순으로 나타남.
 - 논벼는 충남, 전북, 경기도 전국 비율보다 높고, 채소·산나물은 제주, 강원 광역시 지역이 높음.

<농업 경영형태별¹⁾ 마을수>

단위 : 개, %

농업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축산
	36,027	33,223	21,599	27,186	9,922	18,532	2,834	5,253	2,999
	(100.0)	(92.2)	(60.0)	(75.5)	(27.5)	(51.4)	(7.9)	(14.6)	(8.3)
									21,684
									(60.2)

주 1) 2종류 이상의 농업 경영형태가 있으므로 전체 마을수와 일치하지 않음.

□ 생산자 조직 및 쓰레기 처리

읍면지역 3개 마을 중 1개 마을에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자 조직별로 보면, 전체 마을 중 법인이 16.1%, 작목반은 31.6%, 어촌계는 6.3%, 산림계는 1.4%가 마을에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작목반은 3개 마을 중 1개 마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법인은 영농조합이 92.4%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회사 7.5%, 영어조합 5.0%, 어업회사 1.6% 순임.

- 작목반은 채소가 42.4%, 과수가 34.9%, 논벼가 29.3% 순임.

<법인 및 작목반 현황별¹⁾ 마을>

단위 : 개, %

법인	법인 형태				작목반						
	영농조합	영어조합	농업회사	어업회사	작목반	논벼	채소	특용·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과수	기타
5,873	5,424	292	442	93	11,538	3,382	4,897	1,777	303	4,030	2,247
(100.0)	(92.4)	(5.0)	(7.5)	(1.6)	(100.0)	(29.3)	(42.4)	(15.4)	(2.6)	(34.9)	(19.5)

주 1) 마을 내에 2종류 이상 운영 중인 법인·작목반이 있어 전체 마을수와 일치하지 않음.

쓰레기 처리방법은 분리수거가 가장 많음

- 마을별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일반생활 쓰레기 및 농림어업 관련 쓰레기 등 모든 종류에서 분리수거 방법 비중이 제일 높음.
 - 분리수거 비중은 농림어업 관련 쓰레기는 75.2%, 일반생활 쓰레기는 74.8%, 음식물 쓰레기는 43.1%로 각각 나타남.
 - 기타처리 방법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41.4%, 농림어업 관련쓰레기가 13.6%를 차지하는데 주로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보임.